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사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경건생활에 더욱 힘쓰십시오.

오늘 오후집회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각 동호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동호회 광고물을 참조하세요.

봄 학기 성서학당이 이번 주 목요일(17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됩니다. 1교시- 오경 (김재홍 목사), 2교시- 마가복음 (김기석 목사) 생협에서 사과나무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16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 김치를 담급니다.

이주노동자 돕기를 위한 일일찻집(청년부 주관)이 다음 주일(20일)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열립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다음 주일(20일) 오후 선교회 이후에 담임목사실에서 기획위원회가 열립니다.

지방여성교회 지회장 모임 및 여교역자 위로회가 22일(화) 오전 10시에 신창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달력에 따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 \* 식 당 봉 사 : 박효선 허정윤 홍복선 왕영순 임미심 송동준 문복순
- \* 3 / 27 식당봉사 : 청파찬양대
- \* 설 거 지 봉 사 : 이정림 이성경 조지연 권미숙
- \* 다음 주 설거지 : 이국노 김민화 조은나 주경진 이윤정
- \* 새 교 우 : 이채령(청년) 장기욱(4남) 유주연(7여) 박찬덕(4남)
- \* 떡 대 접 : 임주빈 최현옥 (어머님 생신)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에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게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 21. 다 찬양하여라 ..... 다함께
- ♣ 공동기도 ..... 다함께

하나님, 지진과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갑자기 밀려드는 검은 파도에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어버리고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직도 두려움과 충격에 빠져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의 넓은 품으로 안아 주셔서 그들이 다시 안정감을 되찾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도 어려움을 당한 이들과 마음을 같이하게 하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작은 도움의 손길이 모여 절망 가득한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게 해 주십시오. 도움을 바라는 그들의 눈빛을 주님의 초대로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 위로의 말씀 ..... 마5:9,10 ..... 인도자
- ♣ 교 독 문 ..... 124. 사순절(1) ..... 다함께
-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 대표기도 ..... 한상의 장로
- 응 답 송 ..... 찬양대
- 찬 양 ..... 93. 예수는 나의 힘이요 ..... 다함께
- ♣ 성경봉독 ..... I. 막8:31-9:1 ..... 광권희 권사  
 II. 눅13:31-35 ..... 홍순구 권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 찬 양 ..... 찬양대
- 말 씬 ..... I. 고난의 여정을 따라 ..... 이성운전도사  
 II.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 김기석 목사
- 거듭기도 ..... 다함께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김재흥 최희영 이성운 강인식 김정숙 김민화 김성한 조영순 김순복  
 전영웅 김용길 최영혜 김일랑 이은옥 김정애<sup>a</sup>김정애<sup>b</sup>김종락 박영신  
 문복순 최현선 박지인 배근수 김금순 백묘현 서원금 안정숙 임고운  
 임승동 백혜숙 정재정 한상경 한대훈 정연희 안종일 정현주 조항범  
 오현정 이진영 한양미 허신열 강금연 권미정 김지호 전혜리 무명

### 월정헌금:

김명순 이교영 김미순 김영순 김용태 박정숙 김종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문금석 박상규 윤성종 김윤정 이봉배 이성범 정두리 조순덕  
 김성은 이민범 이건식 신영신

### 감사헌금:

김용길 최영혜 문금석 박찬덕 김정훈 이진영 박옥식 김남홍 김 극  
 김종락 박영신 홍순구 안홍숙 최숙화 김정길 김순복 이에서 허신열  
 강금연 김용진 박호선 우순덕 신정아

### 녹색꿈헌금:

김성한 조영순 이진영 김남홍 선우영 박영신 백혜숙 임보람 장원호  
 박성희

생일감사헌금: 조항미 김지윤

	장혜숙	백혜숙	장혜숙	송임희
	노순옥	정경례	정경례	김미순
	임정자	최경미	차혜심	이소순
	문영혜	이명희	곽혜자	김진경
	안정숙	진정숙	조병주	박옥순
	박홍재	곽권희	김순복	백묘현
	박호선	허정운	김정애	김현주
	이순정	김금순	김금순	이봉옥
	이형숙	권미숙	김필순	이형숙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이현숙	송양진	김희우
	이영란	박미영	유혜경	배삼순
	박혜경	조항미	박성희	정현선
	김재흥	오자영	교회	교회
	김기석	이건식	김성은	이건식

## 사과나무 분양 안내 (청과생협)

추운 겨울이 지나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듯이,  
이번 3월에도 어김없이 사과나무 분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정 금액을 납부하시면 한 그루의 한 해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농약으로 가꾼 사과를 올 가을에 드실 수 있습니다.  
2009년까지는 사과가 굉장히 달고 맛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사과가 그다지 맛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나무가 많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사과 맛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떠한 기후변화로 사과나무가 아플지도 모르니까요.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맛없을지 모르는 사과를  
누군가는 계속 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와 함께 아파하는 농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사과나무가 다시 건강을 되찾기 위해

- 분양신청기간 : 3월 13일 - 4월 24일
- 분양 가격 : 110,000원 (연 1회 납부)
- 생산자 : 정하중 (충북 음성군 일신농장)
- 받으시는 사과 : 사과 다섯 상자(5Kg씩), 사과즙 한 상자(30봉)
- 받으시는 때 : 9월 초순부터 11월 중순까지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해경	

찬양	..... 449(통377). 예수 따라가며	..... 다함께
♣ 봉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고난과 역경 가득한 삶이지만 우리에게는 가야할 길이 정해져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길을 걸으십시오.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을 걸으십시오.	
다함께 :	아멘. 작은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애굽의 고기 가마를 떠올리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좀더 마음의 고삐를 단단히 쥐고 영혼의 말머리를 주님께로 되돌리겠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길을 '나의 길'로 삼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 635. 주의 기도	..... 다함께
♣ 축복	.....	.....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기도 : 장재영 집사 시편을 거닐다 / 손성현 전도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공동기도	신진식 선생
	김기석 목사	김인걸 장로	조항미 집사

3월	영접위원	김인걸	조문규	이건식	문영혜	진정숙	신영신
	헌금위원	방문성 박성실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사순절, 청소부터 합시다

예전에 무주에서 농사 지으며 살적에 겪은 일이다. 한번은 경기도 여주의 어느 도자기 전시장에 가서 일삼아 그릇을 닦은 적이 있었다. 전시장을 운영하는 부부는 전통 도자기를 직접 구워내는 일을 하였는데, 최근에 부도가 나 그 빛을 갠기 위해 전시장을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였다. 우리는 재고물량으로 야적(野積)되어 있던 접시 등을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닦는 일을 했는데, 그릇 자체는 흠이 없었지만 오래 묵은 순서로 먼지와 때가 달라붙어 있었다.

그릇을 닦으며 아내가 늘 하던 말을 버릇처럼 다시 되뇌었다. “그릇은 이렇게 닦으면 다시 깨끗해지는데 사람은 왜 안 될까?” “알면 뭘 해?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 하는 말들이 살면서 자꾸 입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은 그만큼 습관을 벗어나는 게 어렵다는 뜻일 것이다. 이걸 단순히 게으르다거나 욕심 사납다거나 하는 몸에 밴 생활태도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다. 지금 우리를 지치게 하는 어둠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다.

때론 그릇처럼 내 영혼을 얼룩지게 만드는 것, 그 얼룩 때문에 투명하게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걸림돌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제대로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옳게 알지도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영혼의 심연에서 무엇이 소용돌이치고 있는지, 무엇이 들끓어 우리 마음이 이처럼 휘청거리는지 말이다. 그날 우리가 닦던 접시들은 아무런 무늬도 배어 있지 않는 흰색이어서 흙 묻은 얼룩들은 수세미를 권 손질이 닿는 자리마다 하얗게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

연금술 역시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식이라면 여기서 흙·물·공기·불이란 무엇인가? 결국 그들이 찾아낸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흙·물·공기·불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목숨 가진 생명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다.연금술이란 다름아닌 오염된 흙·물·공기·불로 상징되는 것을 정화하는 길이다. 먼저 유기질이 풍부하고 깨끗한 흙, 맑은 물, 신선한 공기,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불길처럼 건강한 불을 요청하는 것이다.

물질적으로는 반생태적 오염환경이 그대로 있는 한 황금같이 빛나는 물질세계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모든 사건이 방 안에서 이루어졌듯이 우리 일상을 정화시키지 않고는 영적 완성을 얻을 수 없다. 이는 내 뼈를 굳게 하고, 내 피를 맑게 하며, 고르게 호흡하고, 정갈한 음식을 먹는 것이다. 인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유롭게 살며 법도(순리)에 맞추어 하느님의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여주에서 무주에 있는 시골집에 돌아와 제일 먼저 부엌살림부터 정리했던 기억이 난다. 살림을 정리해 단출하게 만들고 장판도 새로 깔았다. 주변이 정리되어야 마음자리도 정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쓸데없는 욕심으로 꿰어차고 있던 것들을 모두 버려야 정말 쓸모있는 물건이 눈에 보인다. 벽에서도 장식을 떼어내면 떼어낼수록 마음조차 한가해진다.

사람의 몸과 마음이 서로 조용하듯이 환경과 사람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내 마음을 추스를 수 없을 때는 먼저 집안을 추스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정리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덩달아 정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걸 우린 청소(淸掃)라고 한다. 청소란 국어사전에 ‘깨끗이 쓸고 닦음, 또는 더러운 것을 없애 깨끗이 함’이라고 되어 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사실 공덕을 많이 쌓고, 많이 읽고 많이 기도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많이 버림으로써 이뤄지는 것이다. 이미 고여 있는 썩은 물과 묵은 곰팡이를 청소하지 않은 채로는 아름다운 꽃을 아무리 많이 꽂아놓는다 해도 방안이 더욱 기기묘묘한 냄새로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만들 것이다.

깔끔하게 청소한 방은 프리지아 꽃 한 다발로도 그 향기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해준다. 모든 성인(聖人)들은 청소하는 데 이력이 붙은 청소의 달인(達人)들이었다. 예수님은 아예 당신의 목숨마저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날마다 마당을 쓸고 설거지를 하는 사람은 복되다. 그들은 천상복락을 누리는 길을 날마다 확인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제 재의 수요일도 지났으니 사순절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버리기 시작할 것을 나도 버리자. 그럼 무엇부터 버려야 할까? 곰곰히 생각하는 평화로운 오전이다.